

# 전북지역 봉축 4월 21일부터 시작

### 21일 오후 7시 전주종합경기장 광장 기원탑 점등

전북지역의 올해 '부처님 오신날'(5월 28일) 봉축일정이 결정됐다.

전북도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3월 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지역 각 종단과 대표사찰, 신행 포교단체장 등 스님과 불교지도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계획안과 예산 세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전라북도 봉축행사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28일간의 봉축기간동안 전라북도 내 각 도시의 주요도로에 연등을 설치하는 한편 기원탑, 봉축선전탑, 현수막을 게시해 봉축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규모 연등축제와 어린이 청소년관련 행사, 도내 각 불우

### 연등설치는 5월 1일부터

### 자비나눔 실천에 주안점

### 군부대·불우시설 방문도

시설을 방문해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른 4월 21일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릴 봉축행사는 5월 9일 지역향토사단인 35사단의 세병호 연등제와 5월 12일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주관으로 전북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고 15일에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북도립국악원과 불교연합합창단이 참여하는 팔만대장경 공

### ■ 전북봉축행사 일정 및 계획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기원탑 점등식	4월21일 오후7시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	
35사단 연등제	5월9일 오후7시	35사단 세병호	35사단
어린이 큰 잔치	5월12일 09:00	실무자 협의	
팔만대장경공연	5월15일 19:00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연등축제	5월19일 19:00	전주시청 광장	
6탄약창 연등제	5월23일		임실 6탄약창
장학사업	5월28일	금산사, 선원사 등	
청소년 모악축제	6월9일 09:00	금산사 경내	
위문법회	5월1~28일	교도소, 군부대, 불우시설	

연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등 축제가 개최된다.

이 밖에 각 시군 지역별로 연등축제를 개최하고 군부대, 교도소, 불우시설들을 방

문해 자비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6월 9일의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으로 올 봉축 행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화엄불교대학 입학식

지성불교 실천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이래 2000여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의 대표적인 불교대학중의 하나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이 3월 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불교학과 제2기 71명, 화엄학원 19기 30명의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원행 스님은 "화엄불교대학은 지역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추진해온 교육, 문화사업의 전면에 걸쳐 진입보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대승보살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고 실천함은 물론 제반 신행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강화불교대학 2012학년도 입학식

강화지역 유일의 신도전문교육기관인 강화불교대학(학장 승석, 전등사 주지)은 3월 7일 전등사에서 2012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강화불교대학은 강화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입학에는 제2기 입학생 56명이 등록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적석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여 모두가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불교대학은 전등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강의를 진행한다. 조동섭 기자

##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7회 졸업식

전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은 3월 2일 제7회 졸업(수료)식 및 제9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마음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밝히 주인공으로 거듭나 실천하는 포교사 역할로써 생활불교로 전환시켜 대승보살도 실현과 함께 전태불자 금강인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삼독심을 버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대자대비심을 실천하는



전태불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수현 학장은 인사말에서 "마음공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이서중·고교 입학식

불교계 사학인 경복 정도의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가 3월 3일 신입생 입학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서 학교법인 무일학원 이사장인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대관읍사 회주)은 220여 신입생들을 환영하

며 "이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우학 스님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입생과 재학생 125명에게 9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호남에서 미륵시대 열자

### 한국불교미륵종 창종 20주년 행사 개최

미륵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창종 20주년을 맞아 기념대법회와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미륵종은 3월 6일 광주 미륵사 부설 수자타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종단운영의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임명장 수여 및 미륵종 20년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타중으로 시작된 제1부 법회는 미륵사 육법공양에 이어 미륵사 주지 해법 스님의 발원문 낭독, 총무원장 송정 스님에 대한 공로패 등 수여, 경과보고, 종도스님들의 헌화, 법어, 축가가 진행됐다.

제2부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도대표들에 대한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법문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종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종도들이 힘을 모아 오늘에 이



사진설명

르렀다. 호남은 미륵신앙의 본거지로, 앞으로 호남에서 미륵의 시대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개최된 미륵사는 2010년 미륵종 호남본산으로 지정돼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를 운영하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33인의 선지식·명사법문 들으세요

### 매월 보름마다 광주 중심사서

2011년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중심사 명사초청법회'가 3월 7일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을 첫 법사로 모시고 2012년 강의를 시작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중심사(주지 연광) 명사초청법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출·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이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자본주의는 욕망에 기승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이런 욕망에 탐착되어 그 한계가 있으며, 거짓 행복에 속아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며 "참 행복은 이해와 선정을 통해 욕망을 잘 조절해야 이

뤄지며, 언제 어디서나 청정하고, 어디에도 길리지 않는 평화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심사 신인 주지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등'은 평등을 상징하며, '행복한 동행'은 자비행을 의미한다. 글의 의미처럼 중심사에 살면서 대중들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생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중심사는 이날 지환 스님에 이어 4월 5일 금강 스님(미향사 주지), 5월 5일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6월 5일 김병조(방충인), 7월 4일 미산 스님(중앙사 주지), 10월 3일 도법 스님(조계종결사추진본부장), 11월 28일 유정길(예코보다 대표), 12월 27일 선재 스님(사찰음식 전문가)을 매월 보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7일 광주 중심사에서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맨 왼쪽)을 법사로 모시고 '무등산 중심사 명사초청법회'를 봉행했다.

## 아행가 요가센터 대구에 문 열어

조계종 청량선원 현천 스님(아행가 요가협회장)이 아행가 요가 대구센터를 서울 강남에 이어 2번째로 개원했다.

현천 스님은 3월 3일 대구 수성구청 옆 건물 2층에서 대구전문센터 개원식을 갖고 아행가 요가 센터 전파에 나섰다.

현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요가를 하

다보면 기도가 되고 마음과 육신이 평온하게 된다"면서 불자들에게 요가 수련을 권했다.

아행가 요가는 인도 아행가 선성이 고대로부터 전래돼 온 여러 갈래의 요가를 집대성하고 의학과 과학을 접목시켜 현대화시킨 요가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 천의선도

##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 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합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 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사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 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